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22, 3부 열왕기하 9-10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제 우리는 다소 피비린내 나는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인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이 파괴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후가 얼마나 슬기롭고 결단력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을 어떻게 모두 제거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시골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이 시점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후야, 이 사람은 누구냐? 그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 맏소사,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죽었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요람을 죽였고, 아하시야도 죽였습니다.

그는 아합의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바알 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 좋네.

크고 큰 축하를 해보자. 우리 모두 바알성전, 사마리아에 있는 이세벨의 바알성전으로 함께 합시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습니다.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길 것이다. 다행이군요. 다행이군요.

파티하러 가자.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그의 모든 종과 그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 한 사람도 없는지 보라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오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와. 거기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는 예후의 약속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줍니까? 예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야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훼. 이게 뭔가요? 예후의 기름 부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를 종식시키려는 것입니다.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그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쿠데타에 불과했다면 바알 송배를 없애는 게 그리 밝은 일은 아니겠지만, 바알 송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의 속임수는 바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한곳에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에 축하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 그는 그들의 종교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왕조를 파괴했을 뿐입니다.

24절입니다. 이제 예후는 이 경고와 함께 80명을 밖에 배치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내가 너희 손에 맡기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하면 그 사람은 너희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흠,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들이 나에게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얘기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그는 내가 이 사람들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이 그들을 죽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당신에게 맡겨 그들을 살리고 당신의 생명은 그들의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요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오면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라.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칼로 그들을 베어 버렸습니다.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그 시체들을 밖으로 내던진 다음, 그 우상이 있었을 바알 신전의 내부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신성한 돌을 가져와 불태웠습니다.

돌을 태우려면 꽤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아이돌이라고까지 부르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신성한 돌일 뿐이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알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성한 돌을 헐고 바알의 신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 변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아, 이곳은 더 이상 성스러운 곳이 아닐 거예요. 자, 왜요? 왜 그런 종류의 총체성이 있습니까? 돌을 헐고 성전을 헐고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완전 박멸. 완전 박멸. 조금 떠나면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예, 예. 하나님은 도착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주권을 방해하는 가장 작은 것조차도 우리를 불구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다시 끌립니다. 그것을 제거.

그것을 제거.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 대신에 무엇을 사랑하든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손에는 수백 페니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코로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없애야 합니까? 마지막 하나하나.

마지막 하나하나. 글썄요, 저는 하나만 갖고 싶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 번, 예후에 관해 질문을 한다면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북왕국 초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벤엘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 이게 기회였구나.

누구나 휴식을 취하고 야훼 우상을 제거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말은, 그게 무슨 뜻이야? 만일 당신이 그 우상들을 제거한다면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당신의 왕국의 해체를 의미할까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그 우상을 만들었을 때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없이 벤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 결과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반대해야 하는 곳으로 되돌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질문은 당신과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야 하는데 아직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더욱 분명하고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리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눈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가 행하려고 뜻한 일을 다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 4세대.

북왕국에서 가장 긴 왕조이다. 예후 왕조는 4대에 걸쳐 약 100년 동안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온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읽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에게 순종하며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신 것이니라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랬다. 역동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 또 뭐야? 그 여자에게 금별을 주세요. 완전한 순종, 알았죠? 전체 초점, 그의 방식, 그의 방식, 그의 방식.

또 뭐야? 내 생각에 예후는 순종의 행동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싶지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을 원하고, 그가 당신을 잡게 된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글썄요, 요점을 달성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빵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나의 상사의 뜻도 아니고, 나의 상사의 뜻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관계의 전체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제한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내가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무장시켜 주시고, 오 당신의 종, 주님, 엄격한 결산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므로 예후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승리이자 비극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야훼를 잃을 것이라는 위협에서 북쪽 왕국을 구출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즉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그 일을 부분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제거하라는 그의 임무의 분명한 의도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야훼에 대한 우상 숭배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그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거의 100년 동안 이 금 우상을 숭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글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그게 뭐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제게 칼을 주시면 잘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열왕기서에서 심판에 대해 거듭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미소 속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오, 자기야,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험한 말이었지만 예후는 바로 그것을 놓쳤습니다. 예후가 바로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으나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거기에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예후가 말한 곳은 없고, 그 우상들을 없애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의 임종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른쪽. 아무도 당신 이 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었다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알 것이다.

기도하자.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가 충실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 무서운 일을 기꺼이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것을 즐겼는지 걱정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예후 너머로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마음으로 데려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 빵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단지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